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동체의식에 따라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우인순^{1*}, 박봉선²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²한세대학교 강사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Multicultural expropriation of University student According to Community Spirit

Ann-Soon Woo^{1*}, Bong-Seon Park²

¹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Lecturer,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33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사이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을 높이고, 긍정적 양육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복합, 대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다문화 수용, 공동체 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multicultural expropri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pirit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1,336 first - year students who entered the university were sampled based on the 7th year data of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for a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f the parents recognized by university student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multicultural expropriation, and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ulticultural expropriation. Second, Community spirit i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multicultural expropriation by university students and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ed effect between positive or negative parenting and multicultural expropria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various program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enhance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multicultural expropriation, and to promot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community spirit.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ulticultural expropriation, Community spirit

*Corresponding Author : Ann-Soon Woo(sun16070@naver.com)

Received June 28, 2019

Revised August 1,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는 199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 이전은 일부 종교에서 시행한 결혼식과 88올림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되었다. 1990년 후반에는 농촌에 총 각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통통신이 발달함과 동시에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유입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2015년 278,036가구에서 2017년 318,917가구로 증가하였다[1,2]. 다문화 수용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층 보다 20대 젊은 층에서 인식의 변화가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수용지수가 높게 나타났다[1].

2000년대부터는 이주 인구의 유입 증가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해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동시에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다문화 문제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2,3]. 보편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요소이며 변화된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개인의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4,5].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지만 문화적 수용성[6], 문화 간 감수성, 비교문화 적응성과 유능성[7], 사회적 거리감[8], 다문화 효능감[9], 종족적 배제주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동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글로벌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인종에 대한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정도로 서로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 수용하는 다문화수용성은 공동체의식[11,12], 부모의 양육태도[13], 자아 존중감[10], 해외문화의 경험유무[14-16], 학교에서의 교우, 교사관계[17,18] 등과 주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의 시기는 더욱 그러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가지게 되는 다양성과 편견에 대한 태도는 물론 인종에 대한 차이의 수용 및 사회성, 협동심, 배려와 이타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9,20]. 온정적이고 수

용적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진로정체감, 타인 배려태도, 다문화 수용성 등의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3]. 반면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적·정서적 발달과업은 물론 신체적 발달과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23,24], 이는 역시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귀결 된다[21,25]. 동일하게 청소년 시기로 보기는 하지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다문화 노출이 이루어지는 대학생 시기는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이나 개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이나 권한, 환경요인 등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6,27].

글로벌 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공동의 이해나 목적,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의존, 정서적 결속력을 주요요소로 규정하고 있다[28]. 공동체 의식은 자아존중감, 자아 정체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지만[29],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정치적 환경 등 사회적 집단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역할모델 작용으로 자녀의 시민참여 규범, 가치, 행동 강화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30].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와 대사회관계에 대한 신뢰, 책임감, 시민적 가치 습득을 도와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1,32].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인적 경험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 획득,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3].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상호간 책임감 배양과 결속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기제로 작용한다[34]. 국가와 민족 구성원간의 이동이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은 지역중심에서 사회에 대한 유대감이나 상호작용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류 공동체로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작용적인 관계인 다문화 수용성과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10]. 공동체 의식의 향상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주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11,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공동체 의식이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 간에 있어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대학생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패널 7차년도 자료는 조사 시점에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장하였으며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패널 조사의 표집대상 중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총 1,336명이다.

2.2 측정도구

2.2.1 다문화 수용

다문화 수용 척도는 YangJung[35]의 다문화수용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수록된 문항이다. 다문화 수용의 질문 문항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분석 시 역변환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27로 나타났다.

2.2.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애정, 합리적 설명)와 부정적 양육태도(과잉기대, 과잉간섭)로 분류하였다[36].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애정과 합리적 설명의 평균값을 긍정

적 양육태도라 하고 과잉기대(3문항)와 과잉간섭(4문항)의 평균값을 부정적 양육태도라 한다. 과잉기대는 4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설명력이 다소 낮은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면 좋겠음'을 제외한 총 3문항이 분석에 적용되었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의 각 문항은 역변환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설정되어 있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며,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52, .819이다.

2.2.3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척도는 Kwon[37]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수록된 문항이다. 공동체 의식 척도의 질문 문항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음'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4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부터 1점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분석 시 역변환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15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과 관계있는 변수를 파악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왜도와 첨도의 통계치를 통해 정구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다문화 수용과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대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모든 분석을 위해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으로 처리했으며 이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610	46.5
	Female	701	53.5
Housing type	A single house	262	20.7
	Apartment	807	63.9
	A row house	109	8.6
	Other	85	6.7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182	14.4
	Over 24 million ~ less than 36 million won	236	18.7
	Over 36 million ~ less than 48 million won	242	19.2
	Over 48 million ~ less than 60 million won	235	18.6
	Over 60 million ~ less than 72 million won	185	14.6
	Over 72 million won	183	14.5
Family Composition	Father, mother and children	1,099	87.0
	Other	164	13.0
Monthly allowance	under 100,000 won	256	20.3
	Less than 110,000 won and 200,000 won	239	18.9
	Less than 210,000 won and 300,000 won	420	33.3
	Less than 300,000 won and 400,000 won	209	16.5
	More than 41,000 won	138	10.9
Brother and sister status	Yes	1,152	91.2
	No	111	8.8
Parent's cohabitati on status	Yes	762	58.1
	No	549	41.9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10명(46.5%), 여학생이 701명(53.5%)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807명(63.9%)이고, 다음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은 262명(20.7%), 연립주택이 109명(8.6%), 기타 85명(6.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연간 소득을 살펴보면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 242명(19.2%)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236명(18.7%),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235명(18.6%), 6,000만원 이상~ 7,200만원 미만 185명(14.6%), 7,200만원 이상 183명(14.5%), 2,400만원 미만 182명(14.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87.0%). 월평용돈을 살펴보면, 21만원 이상~30

만원 이하인 경우가 420명(33.3%)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 256명(20.3%), 11만원 이상~20만원 이하 239명(18.9%), 31만원 이상~40만원 이하 209명(16.5%), 41만원 이상 138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1,152명(91.2%)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762명(58.1%)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959($sd=.493$),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010($sd=.544$), 공동체 의식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997($sd=.452$), 다문화 수용 요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차는 3.131($sd=.568$)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작았으며,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336)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00	4.00	2.959	.493	-.264	.621
2)	1.00	4.00	2.010	.544	.205	-.312
3)	2.00	4.00	3.00	.452	.409	.054
4)	1.00	4.00	3.131	.568	-.038	-.385

1) Positive Attitude 2) Negative Attitude 3) Community Spirit 4) Multicultural Expropriation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행렬은 Table 3과 같으며, 분석결과에 사용된 변수들은 유의수준 .05 미만인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공동체 의식($r=.273$, $p<.01$) 및 다문화 수용($r=.172$,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부정적 양육태도($r=-.419$,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동체 의식($r=-.053$, $p<.01$), 다문화 수용($r=-.156$,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 수용에($r=.364$,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419*	1		
3)	.273**	-.053***	1	
4)	.172**	-.156***	.364**	1

**p<.01, 1) positive attitude 2) Negative Attitude 3) community spirit,
4) Multicultural expropriation

3.4 연구모형분석

3.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모형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38]가 제안한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의 영향 관계를, 2단계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Table 4의 1단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eta=.147$, $t=5.442$, $p<.001$)는 다문화 수용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beta=.056$, $t=2.111$, $p>.05$). 매개변수인 공동체 의식은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0$, $t=13.257$, $p<.001$).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3.6%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eta=.262$, $t=9.927$, $p<.001$). 또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6.9%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

용 간에 관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pirit between positive attitude and Multicultural expropriation

Level	Variable	B	β	t	F	R ²	adjusted R ²
1 level	1)→3)	.170	.147	5.442	29.644***	.022	.021
2 level	1),2)→3)	.064 .439	.056 .350	2.111 13.257***	104.631***	.136	.134
3 level	1)→ 2)	.240	.262	9.927***	98.543***	.069	.068

***p<.001, 1) Positive Attitude 2) Community Spirit 3) Multicultural Expropriation

3.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기록하였다. 1단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의 영향 관계를, 2단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Table 6의 1단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beta=-.150$, $t=-5.527$, $p<.001$)는 다문화 수용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beta=-.130$, $t=-5.124$, $p<.001$). 매개변수인 공동체 의식은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7$, $t=14.118$, $p<.001$). 2단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1단계보다 절대값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공동체 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eta=-.056$, $t=-2.048$, $p<.05$). 이처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간에 관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을 보여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Variable	B	β	t	F	R ²	adjusted R ²
1 levl	1)→3)	-.156	-.150	-5.527 ***	30.5 50***	.022	.022
2 levl	1),2) →3)	-.135	-.130	-5.124 ***	1172 02**	.150	.148
		.448	.357	14.118 ***			
3 levl	1→2)	-.047	-.056	-2.048	4.193*	.003	.002

*p<.05, **p<.01, ***p<.001, 1) Negative Attitude 2) Community Spirit

3) Multicultural Expropriation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공동체 의식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 간에 있어 확률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ositive attitude → community spirit	→	7.993	.000
Multicultural expropriation			
Negative Attitude → community spirit	→	-2.022	.022
Multicultural expropriation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다문화 수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동체 의식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 간에 있어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육할수록 대학생은 문화의 다양성 인식 폭이 넓어져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21,34,39]와도 일치한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부

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13,23,34]와도 일치한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다문화 수용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40,41].

넷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공동체 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공동체 의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다문화 수용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4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기에 직면하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몇몇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다문화 수용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무한 입시경쟁과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룹이나 전공단위의 사회봉사활동 수업의 도입이나 해외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은 물론 세계 속의 일원으로 가지는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의 실행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학령기가 지나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며 특히 자녀들의 대학입학이 지나면 더더욱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는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주로 부모교육이 중·고등학교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둔 대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다. 청소년기의 실질적인 확대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연령이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학이나 지역사회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로 접어드는 대학생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노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 과목개설이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실질적 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 욕구 증가로 늘어나는 해외여행을 단순 관광에서 현지문화와 현지인과의 관계형성은 물론 사회봉사활동 까지 담아낼 수 있는 비교과 과정의 개발과 운영확대가 필요하다. 더 나갈 수 있다면 대부분의 청년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언어 연수나 워킹 휴리데이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과나 국가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가 있게 된다면 대학생들의 다문화 노출확대에 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확대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가 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패널 7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여 패널 조사가 주는 외적 타당도나 대표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사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다문화 수용, 공동체 의식 등에 관련된 하위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둘째, 다문화 수용은 성장과정에서 주어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중 1 패널 7차년도의 대학생 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연령대와 대학생이 아닌 대상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학령에 따른 다문화 수용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www.mogef.go.kr
- [2] S. J. Lee, M. S. Min, H. O. Shin & T. J. Lee (2009). *Constructing a Policy Paradigm for a Transition to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 Enhancement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3] K. Y. Han. (2007). *A Critical Review on the Cost of International Marriage for Farming and Fishing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Seoul :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 [4] T. W. Kim, Y. Y. Jo, Y. O. Lee & H. J. Lee (2016). Access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College Students : Validatio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cal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1(1), 57-78.
- [5] S. Akyildiz. (2018). *The 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Competency Perceptions and Democratic Values of Primary Teachers at Schools that Foreigner Students Attend*. *Education and Science*, 43, 151-165.
- [6] H. S. Park & M. S. Won. (2010). An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4(2), 303-325.
- [7] J. Y. Lee.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8] M. H. Jung & O. B. Park.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7(2), 81-105.
- [9] S. S. An. (2012).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Multicultural Water for the People*. Seoul : Korea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 [10] B. S. Hong.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eenagers' Self-Resp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en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83-110.
- [11] J. H. Koo. (2015). The Grade Difference in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7(1), 1-24.

- [12] B. E. Seo.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Youth. *The Journal of Youth Facility Environment*, 13(2), 111-120.
- [13] J. W. Kwon & S. H. Lee. (2015). Testing Models of Relation to Parents Rear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 *The Journal of Youth Culture Forum*, 44, 7-32.
- [14] D. E. Campbell. (2010).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15] E. H. Jang & J. K. Eo. (2013).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Concept, Cross-Cultural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89-305.
- [16] Y. E. Jun & Y. S. Kim.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Secondary Student participating the Arts and Culture Activities of 'the Borderless Village RPG Progra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Studies*, 8(2), 55-77.
- [17] S. M. Nelis & G. Rae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18] S. K. Lee (2015). Longitudinal Changes and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ceptability toward Multicultur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27-48.
- [19] M. Wotorson. (2001). *Partners Against Hate Program Activity Guide: Helping Children Resist Bias and Hate*. Washington, DC: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 [20] M. Y. Lee & K. Y. Kim. (2011). Parents' Behavior Control Recognized by Early Adolescence and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Friend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193-218.
- [21] E. J. Seol & O. B. Jeong.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2), 91-114.
- [22] J. Y. Choi & J. C. Kim (2015).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89-411.
- [23] B. S. Park & S. B. Yang (2017).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39-146.
- [24] M. E. Kenny & K. G. Rice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25] S. H. Beak & H. W. Chung. (201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Youth*, 28(1), 151-182.
- [26] J. K. Kim. Y. S. Chung & G. B. Lee. (2015). *A Study of Mid- and Long-term Polic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Youth in their 20s and Post-Adolescent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7] K. P. Ju. (2015). Revisiting the Korean Youth Welfare Policy through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Emerging Adulthood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189-21.
- [28] J. Y. Heo & B. M. Lee. (2017). Differences of Youth's Sense of Community Depending on Perceptions of Positive Interdependence During Cooperative Learning. *Korean Journal of Forum For Youth Culture*, 50, 114-141.
- [29] Y. Y. Song. (2016). Impact on the Interpersonal Experience in Youth Activities: Multi - Mediated Effects of Ego - Resilience and Sense of Community - Focused on the First Year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5(20), 191-217.
- [30] G. Y. Kang & Y. M. Jang.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 [31] W. J. Kim. (2012).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During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201-222.
- [32] Y. J. Kim. (2015). An Analysis of School Factors Influenc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Citizenship. *Korean Journal of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2), 175-206.
- [33] D. W. MacMillan & 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34] M. Sandal. (2008). *Community Arianism and Public Nature*. Seoul : Philosophy & Reality.

- [35] K. N. Yang & J. K. Jung (2009).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th for Social Integration.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38-40.
- [36] M. Y. Huh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7] H. W. Kwon (2004).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3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t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7.
- [39] J. Y. Ghoi & J. C. Kim (2015).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89-411.
- [40] J. Y. Park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of Parent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233-251.
- [41] S. H. Cho (2018).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College Freshman, *Korea Journal of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6(4), 87-96.

우 안 순(Ann-Soon Woo)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세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전공(미술석사)
- 2017년 0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노인, 장애인
- E-Mail : annyung62@hanmail.net

박 봉 선(Bong-Seon Park)

[정회원]



- 1994년 8월 : 강원대학교 학사
- 2010년 2월 : 한세대 사회복지 석사
- 2019년 2월 : 한세대 사회복지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청소년, 노인문제, 융합정보서비스
- E-Mail : cjpbsjy@naver.com